

전북,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본격화

3000억원 투자 새만금에 단지 조성 ... KISTEP의 타당성 평가 주목

전라북도가 신성장동력인 바이오화학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전라북도는 국비와 관련기업 등이 3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화학 분야의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새만금지구에 콤비나트를 조성하려는 <바이오화학 2.0 Green Carbon Korea 프로젝트>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3월8일 발표했다.

이어 3월8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2년 8월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심사받게 돼 국내 바이오화학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화학 프로젝트는 바이오화학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강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3-17년 국비와 민간자본 등 32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바이오화학 분야가 계획대로 발전하면 국내 산업생산, 고용창출, 수출 등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09>